“환경·인권·교육에 더욱 관심 가질 것”

성준환 PD 지속가능발전기업협 언론상 대상

‘플라스틱 프리 시티’ 연출
일상 속 플라스틱 문제 조명

“우리의 일상에서 편의를 위해 항상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이러한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줄여나가거나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주최하고 GS건설, GS칼텍스가 후원한 제17회 KBCSD 언론상 시상에서 여수 출신 성준환 PD가 연출한 JTBC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프리 시티’가 TV부문 대상을 차지해 화제다.

지난 24일 여수에 있는 성준환 PD의 작업공간에서 그를 만나 수상 소감, 다큐의 내용, 각오 등을 들어봤다.

성 PD는 “일상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생각보다 많으며 플라스틱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분리수거 등 폐기물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플라스틱 배출은 매우 높은 편이고 실제 국내 폐기물 구성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3위이며 점차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은 강과 바다로 스며든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음식물이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 이러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며 1회용기 소비를 줄이고 다회용기로 대체하고 있으며 배달음식 시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과 재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도 활발하게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을 갖고 친환경 플라스틱 활용 증가, 1회용품 사용 감소, 재활용 증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작품을 위해 지난 1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를 누볐다는 성준환 PD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프랑스, 태국 등 각국 정부의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한 관련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다”면서 “하지만 내용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절실함에 충분한 공감이 이뤄져 이번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상은 평소 환경, 인권,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지킨 조그마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변치 않고 세심하면서도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영상작업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준환 PD는 그동안 KBS 6시 내 고향, 수요기획, MBC 휴먼다큐, SBS스페셜, EBS 다큐프라임, 하나뿐인 지구, 세계의 아이들 등 많은 기획물을 내놨다. 개인과 그룹을 넘나들며 사진전을 갖기도 했다. 지난 2018~2019 LFI 마스터 샷 2회, 아시아 카테고리에 한 차례 선정됐다. 특히 2019년에 영국 ‘포트레이트 오브 휴머니티’ 세계의 초상화 사진전 2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돼 명성을 확인했다. /우성진 기자

광산구 외국인주민 정책, 행안부 장관상

제10회 다문화 정책대상서

광주 광산구가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화합의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한 정책의 성과로 제10회 다문화 정책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 정책대상은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기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을 받은 광산구는 인권·안전, 정착 지원, 소통·상생, 참여 확대, 도시 경쟁력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호남권 최초 외국인주민과를 신설,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살리는 문화다양성 도시 광산’을 비전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유학생, 고려인동포 등 광산구 거주 외국인주민은 2만 3,000여 명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다국어 생활정보 길라잡이’ 등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통장, 재능기부단을 운영해 왔다. 또 문화다양성 축제를 열어 선주민과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소통·공감의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했다.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고려인문화관 운영, 홍범도장군 공원 조성, 중앙아시아 역사테마관광지구 추진 등 고려인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선·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며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가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융합해 선·이주민이 어우러져 함께 잘 사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찾아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상태가 됐을 때 말기 부전 환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월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생명나눔 문화확산 등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손오봉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장기기증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생명나눔 실천 운동을 개최하는 등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쌀 기부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지난 24일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쌀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조선대 기획조정실이 진행한 ‘2022학년도 사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인 예산 사업별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과 부서별 예산절감수익증대 사례공모 우수부서 포상 성과로 마련됐다.

총무팀은 새 학기를 맞아 사범대학 소속 시각장애인 학생이 교내 점자블럭 주변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내견과의 통행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민원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했다. 총무팀은 우수부서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의 일부를 시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하게 됐다. /황애란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동부소방 업무협약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 동부소방서는 최근 백화점 직장 의용소방대 지원 및 재난 대응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화재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재난상황 대처방법 등을 상호간에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간다.

북부 의용소방대원 배식봉사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최근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의용소방대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점심식사 배식을 돕고 급식소 바닥과 테이블 청소 등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했다.

문화예술로 주민 공동체 만든다

계림아이파크SK뷰 ‘On동네방네 인문예술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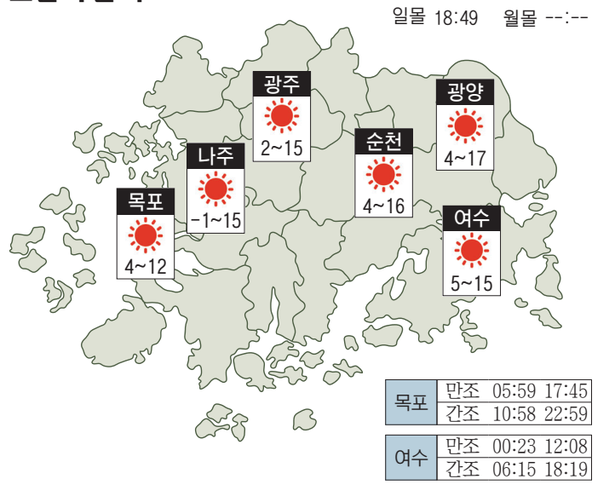
문화예술을 통해 아파트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On동네방네 인문예술파티’가 지난 25일 광주 계림아이파크SK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인문·예술·과학을 통한 공동체라는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미디어 큐브와 패널의 디지털 영상, 전시, 공연, 백일장, 인문강연, 커피 강연과 시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아파트 주민과 동구 주민 3,500여 명이 참여, 주민의 화합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눴다.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는 건립 과정에서 주변 주민과 갈등과 함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단체의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문화를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냈고, 공연, 전시, 미디어, 문학, 푸드,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었다. 이들은 매주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고민했고, 광주 동구가 이를 지원키로 했다. 민·전·관·정의 ‘광주아트리빙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으로부터 모든 행사 진행을 맡았다. /최진화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6:27 월출 09:41
일몰 18:49 월몰 --:--



	만조	간조
목포	05:59 17:45	10:58 22:59
여수	00:23 12:08	06:15 18:19

장성	-1~15	영암	1~15	완도	5~16
담양	-1~15	진도	4~12	강진	2~15
화순	0~16	신안	3~12	장흥	1~16
영광	1~12	흑산도	5~11	해남	2~14
함평	0~14	구례	1~16	고흥	3~16
무안	1~12	곡성	-1~15	보성	1~15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전매게시판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곳 jndn@chol.com

결혼

▲손영환(전 목포대 교수)·김미라씨(호남대 교수) 장남 우성군(상명대 교수), 서형건·박주영씨 차녀 지원양(용인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의사)=4월 15일(토) 오후 6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피로연(광주)=4월 1일(토) 오후 6시~8시, 광주웨딩그룹 위더스 2층 E, F홀.